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건축가

# 조선조 말기 朴吉龍 (1898~1943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서울 여기 저기에는 아직 몇개의 옛 건물이 우리 눈을 끈다. 우리 전통적 옛 건물이 아니라, 서양식 내지 근대식 건물 말이다. 그런 건물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가장 친근한 건물 하나는 바로 화신백화점 건물이었다.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국세청 건물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다. 지하철 종각역이 얽히는 복잡한 이 거리는 지하에서 하늘 위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들 누가 옛날 그 자리에 있던 화신백화점을 기억할까 의문이 든다.

### 옛 화신백화점 설계한 주인공

그런데 이 옛 화신백화점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박길룡(朴吉龍, 1898~1943년)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는 이 건물의 설계 책임자는 아니고, 몇 명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1930년대 초 한국의 건축가가 처음으로 태어나 활동을 시작했고, 박길룡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당연히 당시로서는 아직 일본인 이외에는 건축을 알만한 조선인은 없었고, 화신도 일본인이 주 건축가였고, 그 아래 몇사람의 건축가들이 함께 일했는데, 박길룡은 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때쯤부터 그가 주(主)건축가로 설계한 건물은 여럿이었다. 그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 건축가였을 뿐 아니라, 1930년대 과학 대중화운동에도 열성이었다.

우선 건축가로서의 박길룡에 대해 살펴 보자. 그의 일생을 크게 빛나게 한 건축가 박길룡의 생애와 업적

에 대해서는 한국 건축사에 잘 기록되고 있다. 건축이 우리 현대문화의 대표적 분야로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건축학사 학자들이 활약하고 있어서 건축가 박길룡은 제법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건물이 처음 세워진 것은 1876년 개국 직후 부티의 일이다. 당연히 당시 조선에 서양식 건축을 지은 첫 사람들은 일본인과 서양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근대식 건물로는 먼저 개항지마다 세운 일본공사관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원산(1880)·인천(1883)·서울(1884)·부산(1884) 등에 영사관과 공사관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소위 의양풍(儀洋風)의 목조 2층 건물이었다. 1882년에는 미국과의 국교를 시작으로 서양 나라들에게도 나라 문은 열렸다. 1890년 이후에는 서양 각국의 외교공관도 건축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1890)·영국(1890)·프랑스(1896)·독일(1900년경)·벨기에(1905)의 영사관 등이 준 르네상스식 벽돌 2층 건물로 세워졌다.

대체로 이것이 한국에서 근대식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그 다음을 이은 근대식 건축물로는 학교와 교회가 있다. 1886년에는 배재학당이 세워졌고, 이어서 명동주교관(1890)·약현성당(1892)·명동성당(1892~1898)·정동교회(1898) 등 고딕양식의 건물도 세워졌다. 이 무렵 인천 외국인 거류지에는 주택 모양 외국인 상용(商用)건축도 세워졌고, 독립협회 주관으로 서울 서대문에 독립문(1897)이 건립되기도 했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했던 아관파천을 끝내고 환궁할 때 경운궁(덕수궁)을 중건하면서 1900년을 전후하여 몇채의 서양식 건물을 세웠고,



종로 1가에 있었던 옛 화신백화점 건물을 설계한 박길룡(朴吉龍/1898~1943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 건축가였으며 과학 대중화운동에도 앞장선 과학자이다.  
1919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총독부 건축기사로 활약하다  
관철동에 건축사무소를 설치한 후 경성제대 본관 건물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1933년 「조선과학」을 창간하여 과학 대중화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석조전은 그 중 가장 큰 것으로 고전주의적인 세련된 건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천주교의 본산인 명동성당은 1892년 8월 5일 공사를 시작해서 1898년 5월 29일에 완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로 지은 교회당이다. 벽돌 모양이 20여종이며 붉은색과 회색 2종류가 있어 이들을 요소 요소에 구분 사용함으로써 조화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띤다. 본당의 높이는 23m, 탑의 높이는 45m이다. 프랑스 신부 코스트에 의해 설계되고 중국인 미장공들에 의해 지어졌으며 고딕양식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장중하게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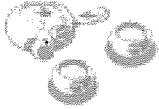
### 관철동에 최초의 건축사무소 차려

덕수궁 석조전(德壽宮 石造殿)은 기본설계와 내부 설계 모두 영국인(하딩, 로벨)이 맡았고, 1900년 착공하여 10년만에 완공되었다. 3층 석조건물로 정면 54.2m, 측면 31m이며, 1층은 거실, 2층은 접견실 및 홀, 3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거실·욕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기단 위에 장중한 도리스식 오더(Doric order)로 기둥을 설치하고 앞면과 옆면에 현관을 만들었다. 이 건물은 앞에 있는 정원과 함께 18세기 신고전주의 유럽의 궁전 건축양식을 본뜬 것이며, 1세기 전의 서양식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해방 직후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열렸으며, 198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한국문화예술포럼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물들이 모두 서양 사람 아니면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던 시기에 조선인 건축가로 처음 그

길에 들어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박길룡이다. 그는 1898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예지동 278번지에서 쌀집 주인 박명옥(朴明玉)의 2남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금으로 치면 종로 4가 카메라 상점 등의 점포가 즐비한 곳 쯤이다. 아마 어려서 가정이 넉넉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어서, 물장수와 쌀배달을 했다고도 전한다.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경성공업전문학교에 들어가 1919년 건축과를 졸업하고 바로 총독부의 건축 기수(技手)가 되었다. 기수란 일제시기 초급 기술자에게 붙인 직책 이름이다. 그는 1932년에서야 다음 단계인 건축기사로 승진했지만, 이틀만에 그 자리를 사직하고 7월 7일 종로구 관철동에 사무소를 차렸다.

이렇게 시작한 <박길룡건축사무소>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건축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1층은 그의 집이고, 2층에 건축사무소를 두었는데, 직원 8명은 전부 조선인이었다. 1922년 일본인을 중심으로 '조선건축회'를 조직했으나, 회원 1백22명중 조선인은 한사람 뿐이었고, 다음해 10명이 가입했는데 대부분 1919년 첫 졸업생을 낸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박길룡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이 작품활동을 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이다. 박길룡의 대표작으로는 성북동 김연수저택(1929)·조선생명보험 사옥(1930)·경성제국대학 본관(1931)·동일은행 남대문지점(1931)·한청빌딩(1935)·화신백화점(1937) 등으로 경박한 기능주의에 흐르지 않는 무게있는 건물로 평가된다고 건축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가 건축가로 활약하던 초기부터 그는 과학운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것이 분명하다. 30년대 초의 과학운동을 앞서 이끈 사람은 박길룡의 경성고보 동창이기도 했던 김용관(金容權, 1897~1967년)이었는데, 나이도 한살 차이밖에 없는 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연고로 그는 김용관이 주동했던 30년대 과학 대중화운동에 아주 열성이었다. 1933년 6월 처음으로 「과학조선」이 창간되었을 때 박길룡은 발명학회 이사장이란 직함으로 창간사를 쓰고 있을 정도다. 2쪽에 걸친 그의 '創刊에 際하여'란 글을 보면 그들이 왜 이 과학잡지를 시작하는지 잘 나타난다.

세계가 서로 다투며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선 사람들만 조용하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도 세계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명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발명학회가 「과학조선」을 창간한다면, 이제 과학을 일반에 보급하고, 발명가에게 과학상식을 증진케 하고, 학생들에게 발명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전임이사 김용관씨의 열성이 컸음을 인정하고 있다.

### 「과학조선」 창간, 과학대중화 열어

그 후에도 그는 「과학조선」에 글을 자주 썼다. 제2호에는 '지구생성사(地球生成史)'라는 지구의 역사를 소개한 글, 그리고 '우주(宇宙)에 대한 고찰(考察)'(1935년 3월호) '생활(生活)의 과학화(科學化)에 대하여'(1935년 6월호, 8~9월호)도 보인다. 특히 지금 남아 있는 잡지 「과학조선」에는 여기 저기 그의 사무실 광고가 나와 있다. 제2호에는 <건축공사설계감독//박길룡건축사무소//경성부관훈동197의8//전화(광화문)1564번>이란 녀줄 짜리 광고도 보인다. 특히 그는 여러 차례 기부금을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 또는 「과학조선」에 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4년 과학데이 행사가 거국적으로 열렸을 때는 윤치호(尹致昊)와 이인(李仁)이 각각 3백원을 냈고,

그 다음으로 박길룡이 2백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유홍(柳鴻) 20원, 이강현(李康賢) 30원으로 총액 8백50원을 거둔 것으로 당시 「과학조선」 3권 1호(1935년 2월)에 밝혀져 있다. 당시 「과학조선」 1부에 20전이었으니까, 말하자면 박길룡은 혼자서 잡지 1천부의 값을 기증한 셈이다.

이 기회 말고도 여러 차례 「과학조선」을 위해 기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로 볼 때 당시 박길룡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도 짐작이 된다. 원래 부유한 집 아들 같지는 않고 보면 그는 이미 건축가로 성공하여 좋은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30년대의 과학운동에서 김용관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건축가로서만 평가되어 온 그의 일생은 과학 계몽가로서도 다시 조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박길룡은 일제 말기에는 동구능 근처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과 나들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들 박용철씨(한국선박기술 고문)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겨울에도 냉수 마찰로 몸을 단련하고 건축사무소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 잡지 「건축조선」을 1941년 4월에 아주 간단한 팜플렛으로 창간하여 시작했다. 그런데 건강하던 그는 1943년 4월 27일 오전에 이화여자전문학교(지금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던 중에 쓰러져 공평동 사무실로 옮겼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 해 전부터 이화에서 축탁강사로 강의를 맡기 시작했던 그의 나이 겨우 45세때였다. 종로초등학교에서 장례식을 마친 그는 서울 망우리 묘역(구리시 쪽 =109709번)에 잠들어 있다.

그의 작품으로 화신백화점은 1988년 이후 사라져 버렸지만, 경성제대 본부 건물은 지금도 문예진흥원에서 애용하고 있다. 그 걸모양에서 박길룡의 자취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 또 그는 「과학조선」에 많은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언론에도 많은 글을 쓰고 보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지 못하고 있다. ④7